

카길에그리퓨리나코리아

2007 카길에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

재단법인 카길에그리퓨리나문화재단(이사장 김기용)은 지난 12월 11일 '2007 카길에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영예의 수상자들은 개인부문에서 김병철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장, 오상집 강원대 동물생명과학대학장, 윤화영 서울대 수의과대학교수,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이며, 단체부문에서는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펫산업협회, 축산물 HACCP기준원이 차지했다.

단체상은 받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낙농산업 및 육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한미, 한EU FTA와 우유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 방향 연구 및 낙농산업 연구실적을 통해 낙농기술 및 정책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 함께 이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라이브맥

공장이전 기념식 개최

지난해 11월 30일 (주)라이브맥(대표 김병관)은 김제시 백구면에 5,500여평의 부지에 공장을 신축 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날 라이브맥 김사장은 인사말에서 "10전 전만 해도 생산기반 없이 수입에만 의존하다 IMF사태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이후로 국내 생산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기술 개발에 매진,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조사료 전문 작업기 생산업체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사장은 "전국 총판 및 대리점의 서비스 기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성수기 신속한 서비스 집중을 위한 서비스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라이브맥은 1993년 웅진정밀(주)로 농업기계의 수입판매를 개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첫 자체 공



장을 김제시 만경공단에 설립하면서 조사로 잡업기의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후 2004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100% 국산화된 자동원형베일레퍼의 개발을 완료하며 수입기계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에는 그디어 자체 개발로 생산된 사료배합기가 호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었다. 2006년에는 국내 축산기계분양의 공헌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07년에는 일본 타카기타사와 포괄적인 업무협력관계를 구축과 함께 조달청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아정적인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해 이곳 백구면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아이.이.아이

참빗솔, 일본수출 개시

아이.이.아이(대표 고복단)는 2007년 일본 (주)가와바다산업과 참빗솔 수출 계약을 맺어 지난 12월 11일 첫 선적을 하며 국내 축산 기자재산업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아이.이.아이는 2005년 설립하여 오직 참빗솔만을 연구 개발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참빗솔 전문업체로 국내 시장의 7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10개의 대리점을 통해 A/S망을 구축하여 농가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있다.

또한 아이.이.아이는 국제인증원으로부터 ISO9001:2000 KS A9001:2001인증을 획득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아이.이.아이 고복단 사장은 “최고의 제품으로 낙농가와 함께한다는 기업이념을 가지고 우수한

제품과 우수한 서비스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성사료

한우 우수농장의 날 행사 실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충주시 그랜드관광호텔에서 이 지역 한우 경영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고급육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충주 지역에서 출하된 총500두 중 우성사료를 급여하여 출하한 두수는 총153두로1+등급 이상 41.8%, 1등급 이상 82.4%, 육량은 A,B등급이 총85% 로 나왔으며 이 성적은 우성사료를 급여하지 않은 농가의 1+등급 이상 40.9%, 1등급 이상 74.1% 보다, 각각 0.9%, 8.3% 우수한 성적이다.

“더한우마루” 고급육 사료를 급여한 최천식(충주시 주덕읍)씨는 33두를 28개월령에 출하한 결과 도체중429kg이 나와 “출하체중 뿐만 아니라, 육질등급까지 매우 만족하며 후기섭취량이 줄어들지 않아



후기 증체가 매우 뛰어났으며, 이재학씨(충주시 주덕읍)는 16두를 출하하여 1+등급 50% 29개월령 평균 도체중 450kg 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받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상환 과장은 한우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등급을 향상과 28개월령 출하체중 720kg을 목표로 한 사양관리와 효과적인 고급육 프로그램 접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성사료의 더한우마루 고급육 사료와 프로그램은 한우의 1)브랜드 파워강화, 2)최상의 등급판정, 3)비육장애방지, 4)체중의 대형화를 목표로 하며 마블링에 필요한 고급 에너지원인 식물성 천연보호지방을 기용했으며, 비육중기에는 비타민A 함량은 낮추고, 보호비타민C를 첨가해 지방이 근육내에 섬세하게 침착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우 한 마리가 출하 때 까지 보리 후레이크 200kg을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유백색의 고급 지방이 축적되고, 유기태 셀레늄과 아연, 유기태 코발트와 크롬, 비타민E를 첨가해 소의 건강유지와 선홍색의 육색을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했다.

동조물산(주)

Lely Astronaut A3 8호기 정동 목장 설치

Lely Astronaut A3 로봇 착유시스템 8호기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경남 정동목장(대표 김정섭)에 설치 가동되었다.

고능력이 많은 정동목장의 김정섭대표는 “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스트레스없이 착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소들의 복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Lely 로봇착유기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

하며, “로봇 착유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소에게 보다 더 정확한 개체별 관리를 할 수 있고, 소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또 편안하게 자주 착유하면서도 개체별 급이를 통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Lely 아스트로넛 A3 로봇 착유시스템을 선택하였다.”고 로봇착 착유 시스템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Lely 아스트로넛 A3 로봇 착유시스템은 신우목장(대표 김종현. 울산), 황골목장(대표 박창규. 경기), 축산과학원(충남), 금와목장(대표 안상섭. 경남), 보림목장(대표 박충남. 전남), 고향목장(대표 김정대. 전북)에 각각 설치 중에 있다.

단바이오텍

초유급여전 아이지-락 급여에 따른 임상실험 실시

단바이오텍은 ‘초유급여전 아이지-락 급여에 따른 송아지 혈청내 항체가 상승효과’라는 주제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송아지 8두를 가지고 14일간 아이지-락과 초유를 동시 급여한 군을 초유만 급여한 군을 대조군으로 하여 실험을 실시했다.

세균과 바이러스 모두 초유만 급여한 군에 비해 아이지-락과 초유를 동시에 급여한 군의 항체가가 월등히 높았다. 또한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세균의 경우 아이지-락과 초유를 동시에 급여한 군의 항체가가 대조군에 비해 5-6배 정도 높았다.

로타바이러스 및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초유를 통해 얻은 항체가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아이지-락과 초유를 동시에 급여한 군에서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송아지 설사의 원인균인 대장균(F4, F5, F18, F41), 살모넬라(ST, SD)는 물론 바이러스(소로타바이러스, 소코로나바이러스)의 항체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아이지-락의 면역증강효과를 입증했다. 따라서 세균 및 바이러스성 송아지 설사 예방을 위하여 초유급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아이지-락을 급여하여 항체가를 충분히 올려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대산공사

연말연시 대 경품행사 개최

대산공사(대표 최대식)는 지난 12월 29일 지난해 한해동안 대산공사를 사랑해주신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은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07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대산공사 제품 구매자를 비롯한 07대전국제축산박람회, 충북 및 안성 홀스타인 쇼 방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진행되었다.

1등 상품은 100만원, 2등은 50만원, 3등은 2명으로 3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이 상금으로 주어졌다. 추첨결과 1등에 경남 거창의 김용수 씨가, 2등에는 대구 수성구의 중앙공업사가, 3등에는 거창축협 최주호 씨와 전남 완도 우암석 씨가 당첨되었다.

대산공사 최 사장은 "지난 한해 농가들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약소하지만 받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올 한해에도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연산업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심사를 거쳐 '전기용품 안전인증' 수여



다연산업(대표 금재호)은 대한민국 축산기자재 최초로 지난해 11월 15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심사를 거쳐 '전

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다.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엄격한 심사와 시험을 거쳐 결정되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인증 후에도 전기, 내구성, 규격제품사용 등을 사전 예고 없이 수시로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인증 받은 회사가 잘못되어 제품의 하자나 결함을 A/S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원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어 제품의 우수성 및 신뢰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인증받은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KS마크를 획득한 것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 또는 형사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믿고 사용할 수 있다.

다연산업은 전략과 배짱을 가지고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금년에 축분건조기(모델번호 501, 502, 503, 누드-웬 등)와 온수급수기를 중심으로 일본에 수출했으며, 내년에는 100%이상 증가한 급수기 2,000개, 건조기 1,000대 등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곱팡이가 생기지 않는 급수기는 시험기간 동안에 일본에서 주문이 폭주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